

길림성, 7가지 중점임무로 봄철 산불 방지에 총력

최근, 길림성 총림장은 2025년 제 1호 총림장령을 발부하여 전 성 봄철 삼림초원 방화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포치, 7가지 중점임무를 명확히 하고 '무관용' 태도로 방화 장벽을 튼튼히 쌓을 것을 각급 립장에 요구했다.

현재 길림성은 삼림초원 방화 관건 시기에 들어섰다. 화재 위험 등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예방통제 형세가 준엄하며 복잡하다. 각지는 정치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중대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인민대중의 생명재산과 생태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한다.

각급 립장은 당정 지도자 책임과 부문 감독책임 및 경영단위 주체책임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반드시 일선에

내려가 감독 지도하고 격자화 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책임사슬이 '최후 1키로메터'까지 직통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책임 띠락이 미흡하거나 문제 개선이 지연되는 단위 및 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문책한다.

각 지역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담체를 활용해 방화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인한 화재 사례를 폭로하여 경고교육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과 대피 및 자구(自救) 기능훈련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사에서 종이불 태우고 야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위험하게 불을 사용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군중들을 인도하는 동시에 여론감독과 긍정적 인도를 강화하여 전민방화의 책임 의식과 법치 의식, 안전 의식을 전면적으로 제

고해야 한다.

화재원을 엄격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청명절 제사, 춘경 준비, '5.1절' 연휴를 엄격한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묘지, 관광지, 농림교차지역에 대해 24시간 순찰을 진행해야 한다. 방화구역의 농경지 잔여물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방화구역내에서의 종이 태우기, 버섯조각, 야외캠핑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지역간 연합 예방통제를 강화하여 불씨가 산림으로 류입되는 것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

잠재적 위험 실시간 제거(隐患动态清零)를 실시하고 주요 산림지역, 송배전시설(输配电设施), 산림 접경 농경지 등 고위험지역에 대해 우환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기한내에 시정하

고 장기적인 방역체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위성 감시 + 무인기 순찰 + 지면 순찰'의 입체적 감시체계를 강화해 화재의 조기발견, 조기보고, 조기처리를 보장해야 한다.

비상 대응 차원에서 각 지역은 24시간 당직 및 지도자 근무 교대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화재 정보 보고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전문화재진압팀을 전방에 주둔시키고 실전 훈련을 실시하며 진압 장비와 물자를 보완하고 과학적으로 진압계획을 세워 인명피해를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

현재 길림성은 산림초원의 화재 예방 특별 감독검사를 가동하고 수만명의 '산불 방지 3대 요원(三员)'을 배치해 봄철 화재 예방 기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 길림일보

서부지역 지원자들, 장백현서 친선교류 활동



3월 31일, 서부지역에서 장백조선족자치현을 방문한 30여명의 대학생 지원자들이 장백출입경변감사소의 안내로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이 국경지역의 발전 현황과 조선족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민족간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 서부지역 지원자들은 장백통상구 국문검문소를 방문해 병영 체험, 민족문화교류, 이국적 풍경 관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장백국경감사소의 사무실과 식당을 견학하며 출입국 관리 경찰관들의 일상 업무 환경을 직접 살펴본다. 이어 장백통상구 경무장비전시센터에서 최신형 무인정찰 장비와 순찰 장비를 시연 관람하며 국방현대화의 기술 성과를 체험하는 시간

을 가졌다.

서부지역 지원자들은 또 장백—헤산 국경다리에 올라 압록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조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국 정취를 만끽하면서 장백변방감사소의 관계자로부터 장백통상구의 변경무역 현황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관람이 끝난 후 서부지역 지원자들은 이 민경철들과 함께 조선족 전통 음식인 찰떡 치기, 배추김치 담그기, 순대 만들기 등을 직접 체험하며 현지 주민들과 깊은 교류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장백조선족자치현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며 "돌아가서 장백현의 매력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조요동, 최창남

경의·추모·분진... 길림성공안청 청명 주제 시회 개최



4월 2일, 길림성공안청은 중국인민공안대학에 재학중인 영렬 자녀들에게 보낸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담서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찰하고 습근평 총서기와 당중앙의 관심과 배려를 명기하도록 경찰들을 격려하며 영렬들의 유지를 계승하고 영광스러운 전통을 발양하여 길림성 공안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기 위해 '경의·추모·분진' 길림성 공안기관 청명 주제 시회(诗会)를 개최했다.

오후 2시경, 시회는 랑송자들의 감미로운 읊조림 속에서 막을 올렸다. 시가 《영렬광장》과 《충성송》은 흐르는 듯한 묘사와 무게감 있는 표현으로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충성하고 창을 베고 밤을 새우며 앞다투어 정치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며 인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치는 공안대오의 희생정신을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시회는 '경의·추모·분진'을 주제로 시문 랑송과 가창 등 문예 형식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눈물을 자아내는 공안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서 공안영렬들에 대한 동료들과 유가족들의 끝없는 그리움과 간절한 추모를 담아냈다. 새로운 로정에서 초심을 잊지 않고 용감히 나아가는 공안경찰과 보조경찰들의 모습은 현장 관중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시회의 막을 내리면서 경찰들은 "명심은 최고의 추모이고 전승

은 최고의 위로이다."라고 감명깊게 말하며 앞으로의 업무에서 당에 대한 충성, 인민에 대한 복무, 공정한 집행, 엄격한 규율의 충요구를 충실히 실현하고 공안영렬정신을 대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양시키며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탄탄한 기량을 닦아 전 성 공안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새롭고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회의 막을 내리면서 경찰들은 "명심은 최고의 추모이고 전승

은 최고의 위로이다."라고 감명깊게 말하며 앞으로의 업무에서 당에 대한 충성, 인민에 대한 복무, 공정한 집행, 엄격한 규율의 충요구를 충실히 실현하고 공안영렬정신을 대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양시키며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탄탄한 기량을 닦아 전 성 공안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새롭고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회의 막을 내리면서 경찰들은 "명심은 최고의 추모이고 전승

/ 김명준기자

반석에서 타오른 혁명의 불꽃 이어가다

길림성군중성문명실천주무대 행사 반석서 개최

4월 3일, 청명절을 맞아 길림성군중성문명실천(반석)주무대 행사 및 '반석에서 피어난 혁명의 불꽃, 그 정신을 이어가다'(烽起磐石·薪火传承)'를 주제로 한 계열 행사가 혁명의 고장 반석시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성당위 선전부, 성교육청, 공청단길림성위, 길림시당위 선전부, 반석시당위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반석시새시대문명실천중심, 반석시당위 선전부, 중국넷 동북진흥채널, 동북사범대학 력사문화학원, 장춘인문학원, 장춘광화학원, 장춘대학관광학원에서 공동으로 주관했다. 행사는 흥색문화와 문명실천의 깊은 융합을 도모하는 성급 시범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반석시는 동북항일련군의 중요한 발원지로서 중국항일전쟁사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은 당의 령도하에 설립된 첫 항일무장부대인 반석흥색유격대가 탄생한 곳이며 또한 양정우 장군 등 항일련군 영웅들의 중요한 전투지이기도 하다. 행사

는 현지의 흥색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흥색교육 + 문명실천 + 청춘기량'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으며 '길림흥색문명실천모식'을 건설하는 데 주력했다. 행사에 앞서 각계인사와 대학생 대표 600여명이 반석시 정우광장에서 '청명절 련사 추모' 주제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추모식이 끝나고 길림성군중성문명실천주무대 행사가 반석시당위당학교 보고청에서 시작되었다.

행사에서는 '반석에서 피어난 혁명의 불꽃, 그 정신을 이어가다'는 주제의 선전 영상과 중국넷 동북진흥채널



제작 단편드라마 《붓을 내려놓고 무기를 든 여섯 청년(六学子投笔从戎)》 및 성내 일부 대학생들이 제작한 항일련군 주제 단편영상 및 주제 연설 영상을 방송했다. 이와 함께 '전성 대학생 단편영화 공모전'이 있었다. 특히 양정우 장군의 증손 마성명(马铨明)이 직접 무대에 올라 동북항일련군의 감동적인 투쟁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북사범대학 등 4개 성내 대학교에서 반석에 설립한 '항일정신전승연학기지'의 현판을 제막했다.

장춘대학 관광학원 학생 랑형(梁馨)은 "현장 학습을 통해 행복한 생활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깊이 체득했다. 우리는 용감하게 시대의 사명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길림성에서 문명도시건설을 추진하는 중점 프로젝트로서 앞으로 일련의 실천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문명 의식과 사회문명 수준을 종합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오건기자

룡정시, 기층 처리 능력과 봉사 수준 향상

최근, 룡정시 룡문가두 복신사회구역 모 주택단지의 건물에서 빈번한 정전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기제품의 파손으로 건물주와 부동산 관리부문에 분쟁이 벌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해당 주택단지 위챗 미니프로그램(微信小程序)을 통해 일련의 문제를 룡정시사회치안종합관리센터(综治中心)에 직접 제출했다.

센터는 '원스톱' 분쟁 해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공안, 사법, 민소, 전력공급, 가두와 사회구역 등 부문을 포함한 연합사업조를 신속히 조직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정전 원인이 주택단지의 전기회로 리화와 겨울철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과부하라고 확정했다. 또한 평소 필수적인 전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부족한 점도 문제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문제의 원인을 확정한 후 센터는 즉시 건물소유자대표, 부동산관리부, 전력공급부 및 관련 가두를 조직해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각측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전력공급부문은 주택단지의 전기회로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와 보수를 할 것을 약속했으며 부동산관리부문은 일상 유지보수 강화와 함께 정전으로 인한 주민 가전제품 파손에 대한 부분적 배상도 담당하기로 했다. 여러차례의 협상을 거쳐

각측은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으며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3월 31일까지 센터는 도합 1,527건의 모순분쟁중 1,489건을 성공적으로 해결, 97.51%라는 해결률을 기록했다. 센터는 여러 자원을 통합하고 다방면의 협동협력 및 정확한 시책을 통하여 군중들이 직면한 긴박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층 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봉사 수준을 향상시켜 전 시의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데 튼튼한 지지를 제공했다.

룡정시당위 정법위원회 종합관리과 과장 조사상(赵思翔)은 "룡정시는 올해 2월부터 3급 종합관리센터 승격 목표를 제기했으며 종합관리센터의 '원스톱' 시스템을 혁신하여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 시 각 정법부문과 관련 행정부문은 업무수행을 각급 종합관리센터에 선행 파견하여 협력 련동을 강화하고 사업합력을 형성했으며 모순분쟁, 소송조정, 래신래방 사항, 로동중재, 행정재결, 행정제외, 심리봉사 등 여러 사업에서 군중들의 인정을 받아왔다. 동시에 종합관리센터의 규범화 건설 승격사업이 능률적으로 추진되도록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폐환관리를 형성하였으며 후속추적감독 처리가 제대로 실시되어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제1방선'을 힘써 구축했다."고 전했다. / 길림일보